

NEWS LETTER

2019년 4월 9일 Vol. 339

제10대 이해원 병원장 취임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4일 오후 5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제10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제10대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으며, 병원 발전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원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배려와 소통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조성민 의료원장은 신임 병원장과 교직원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발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격려했다.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4월 1일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이번 인증 평가는 3주기로 지난해 12월 4일간 시행했으며, 일산한방병원은 2주기로 같은 해 11월에 시행됐다.

인증평가 결과 양 기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4년 동안 인증획득 의료기관 자격으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환자 안전과 질 향상 시스템 유지와 발전으로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지난 4월 5일 제47회 보건의 날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오상우 교수는 그동안 한국인의 비만에 큰 관심을 갖고 비만과 암 발생 사망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업적을 세웠으며, 지역 주민 건강증진 및 국가 건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비만 지도를 완성했으며, 비만예방의 날 제정 및 국내 복부비만 기준 설정,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마련 등 국가 검진 사후관리 제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오 교수는 수상소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비만관리 등 건강 예방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비만관련 정책의 현황과 장단점 분석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비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김포 승가대 의료봉사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28일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화경당과 육화당에서 학인스님 71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법사스님을 비롯해 한방내과 임성우 교수, 한방 소아청소년과 민상연 등 연우회 회원 10여 명이 함께 한방진료 및 침 치료 등 의료공양을 했다.

연우회는 학기마다 중앙승가대를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님들의 학업 수행과 건강증진을 위해 육화당과 화경당에 한방파스 등을 상비약으로 후원하고 있다.

연우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의료봉사 참여와 자비실천의 마음을 기반으로 자비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할 계획이다.

